

# 참여 없는 수익사업 '안개 속'

## 법인설립·인증제 등 새로운 방안 모색해야... 6월경 공청회 예정



조계종이 판매중인 생수 '감'

종단이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받아온 수익 사업에 대해 법인화에 무게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사업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면 법인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로 신도 등 불교계 내부 판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수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종단 내부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다양한 사업 확대가 유리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종단은 조계종 출판사를 별도의 주식회사로 전환했고, 이웃 종교에서도 법인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 설립은 종단의 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돼 왔다. 종단도 법인화에 대한 공감대가 종단 내부에 폭 넓게 형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6월 경 종단 수익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무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종단 수익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할 예정이다. 종단은 설문조사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수익사업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법인 설립의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종단은 또 '인증제' 도입도 고민 중이다. 인증제는 종단이 인증한 업체의 물품 및 서비스를 각 사찰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불교무설연구소도 2010년 발간한 '조계종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사례연구와 사업모델 제언'의 보고서에서 "인증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법인화·인증제, 본말사 참여 관련

하지만 법인화와 인증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두 가지 모두 본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러나 종단은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본말사들의 협력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계종은 2004년 보현판매사 KBLP와 협약을 맺고 '자비의 보험금 나눔'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당시 종단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국 각 사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웃 종교에서도 법인 통한 수익사업 활발

### 법인 설립 성공위한 불교계 특성 연구 중요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전국 2000여개 사찰 중 70개 사찰에서 90명의 스님이 동참해 350건의 계약이 성사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종단이 구상 중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출연금이 필요하다. 더구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영 전문 CEO와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도 자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결국 본말사들이 참여를 이끌어내고, 출연금을 납부한 본말사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산하기구 편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인 설립 후에는 안정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수익 사업 창출만큼 기존에

시행 중인 불교계 수익사업을 법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출판, 생협, 문화사업 분야에서 수익 사업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법인이 설립돼도 이들을 법인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필요하다. 조계종 출판사는 이미 별도의 주식회사로 등록돼 있고, 불교문화사업단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법인 설립 후 공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인증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종단에서 각 종 업체와 물품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본말사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해도 각 사찰에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단이 인증제를 도입해도 사찰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각 개별 사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거래해 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찰의 이익과 편리성을 이유로 기존 업체들을 선호한다.

사찰에 양초를 납품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사찰의 다양한 요구와 주문사항을 만족시키려고 다양한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사장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우리가 거래하는 사찰의 신도로 등록돼 있고, 사찰의 주요 행사 때면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밝혔다.

종단 사업에 대한 각 사찰들의 외면은 수익사업에 대한 신도들의 이해 부족과 저조한 참여로 이어진다. 종단이 상조상품을 출시하고, '물장사'라는 비난까지 받으며 생수 판매에 적극적이지만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신도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가톨릭, 법인 설립 후 매출 170배 증가

가톨릭 서울대교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산하에 (주)평화드림을 2004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종단 수익사업을 시작, 3년 만에 매출액이 170배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계종도 (주)평화드림의 성공을 주시하고 있다.

평화드림은 구매, 레저, 장례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다시 각 분야에서는 의료, 여행, 출판, 가구, 건설, 푸드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조달·구매 전문 아웃소싱 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평화드림은 학교법인 산하기관과 교회기관에서 필요한 자재와 집기, 비품 등을 통한 구매해 보급하고 있다.

평화드림은 당초부터 가톨릭 종단 산하의 기관들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가톨릭계 내부에서 충족시켜 외부로 유출되는 재원을 회향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출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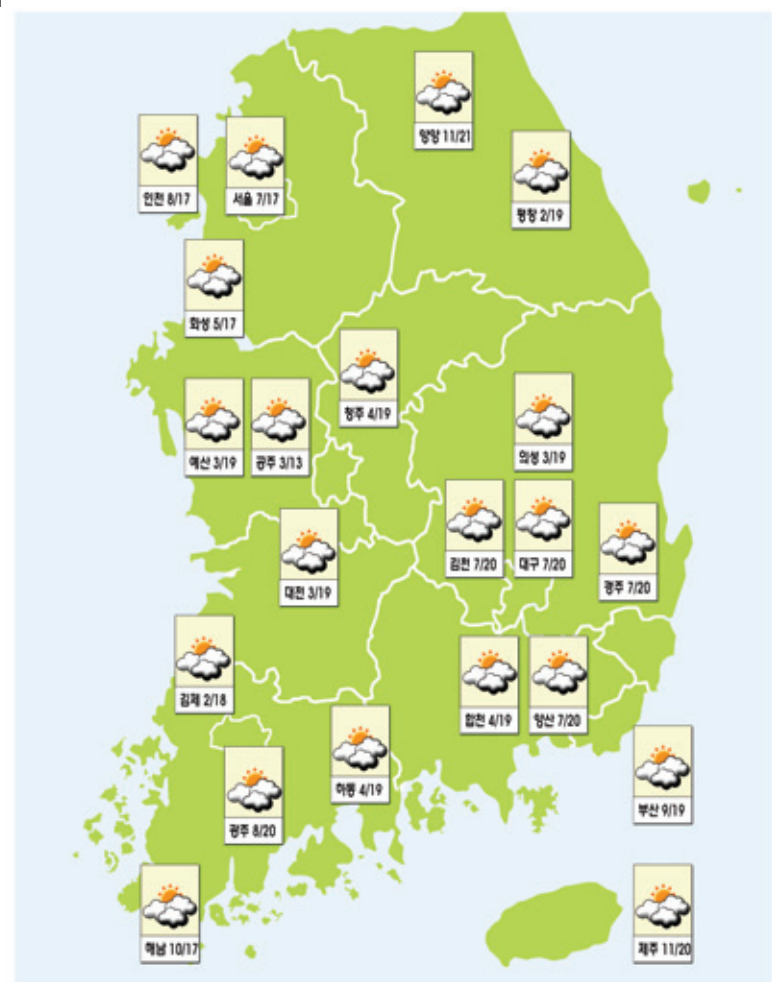
종단의 한 관계자는 "수익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화드림을 롤모델로 법인 설립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천주교와 조계종의 종단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불교계 수익사업을 추진할 법인 설립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천주교가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진 반면 조계종은 25개 교구본사의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불교무설연구소는 "조계종은 총무원장이 동국대 이사장을 겸하지는 않는다. 이런 구조에서 법인 설립 후 종단 내부 인프리를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따라서 종단 내부에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편성하거나 급식, 식자재 유통 등 한 분야만을 따로 떼어내 운영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범·노덕현 기자

### 이주의날씨 4월 셋째 주 (4월 13~19일)

구름 많이 끼지만 포근한 날씨 이어져...한 때 비소식



주요 7개지역 날씨	16일(목요일)	17일(금요일)	18일(토요일)	19일(일요일)
서울	구름조금 8/18	구름조금 9/21	구름조금 9/21	구름조금 9/19
부산	구름조금 9/21	구름조금 9/21	구름조금 9/21	구름조금 9/19
대구	구름조금 9/23	구름조금 8/22	구름조금 8/22	구름조금 8/21
대전	구름조금 8/22	구름조금 8/21	구름조금 8/21	구름조금 8/21
광주	구름조금 9/22	구름조금 7/21	구름조금 10/14	구름조금 7/21
울산	구름조금 13/23	구름조금 8/21	구름조금 8/22	구름조금 8/19
제주	구름조금 11/21	구름조금 10/18	구름조금 10/18	구름조금 10/18

25개 교구사별 예보/예진	25개 교구사별 날씨(°C)	25개 교구사별 강수량(%)			
지 역	13일(수요일)	지 역	14일(목요일)	지 역	13일(수요일)
조계사	06:01/19:05	조계사	구름조금 8/18	조계사	10
충주사	06:02/19:06	충주사	구름조금 8/18	충주사	10
신광사	05:54/18:59	신광사	구름조금 12/22	신광사	10
일명사	05:56/18:59	일명사	구름조금 4/20	일명사	10
법주사	06:11/18:56	법주사	구름조금 6/21	법주사	10
마곡사	06:01/19:02	마곡사	구름조금 5/21	마곡사	10
수덕사	06:04/19:05	수덕사	구름조금 5/21	수덕사	10
직지사	05:58/18:59	직지사	구름조금 8/22	직지사	10
명왕사	06:06/18:51	명왕사	구름조금 8/22	명왕사	10
은혜사	05:57/18:57	은혜사	구름조금 8/22	은혜사	10
고운사	05:56/18:57	고운사	구름조금 4/21	고운사	10
불국사	05:54/18:54	불국사	구름조금 6/21	불국사	10
매인사	05:59/18:58	매인사	구름조금 4/20	매인사	10
장계사	05:59/18:58	장계사	구름조금 4/20	장계사	10
행도사	05:59/18:58	행도사	구름조금 6/21	행도사	10
범어사	05:56/18:54	범어사	구름조금 8/20	범어사	10
금산사	06:04/19:04	금산사	구름조금 3/19	금산사	10
선운사	06:04/19:03	선운사	구름조금 3/19	선운사	10
백담사	05:59/18:58	백담사	구름조금 8/21	백담사	10
와암사	06:02/19:00	와암사	구름조금 8/21	와암사	10
승광사	06:02/19:00	승광사	구름조금 8/21	승광사	10
대흥사	06:06/19:03	대흥사	구름조금 9/18	대흥사	10
관음사	06:07/19:03	관음사	구름조금 11/20	관음사	10
병신사	05:56/18:54	병신사	구름조금 3/18	병신사	10

자료제공=케이웨더 www.kweather.co.kr (02)360-2200

## 가야산 골프장 건설 '사업 불허'

###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종 결정... 환경부 고시 불씨 여전

수많은 논란과 갈등을 낳았던 가야산 국립공원관리공단 골프장 건설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업 불허' 방침을 내렸다.

가야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월 31일 (주)백운이 제출한 사업 허가 신청을 주민 반대와 환경 보전을 고려해 '불허' 했다.

공단측이 사업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업체측의 골프장 사업

재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이번 '사업 불허'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환경부 고시에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시설계획이 존치돼 언제든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다며 고시 삭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기범 기자

### [현대불교신문사·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얀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내인파에 건설중인 코리아기독교총연합회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부출가의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한 권이면 법화경

무엇이 부족합니까?

# 한 권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자비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한없이 솟아납니다.  
이 무궁무진한 자비의 에너지를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입니다. -본문 중

**보경스님의 유쾌한 법화경 읽기**  
보경스님은 차근차근, 조목조목 법화경 구절 구절을 짚어주며 친절하게 강설한다. 스님의 종교를 넘나든 다양하고 감동적인 예화는 읽는 이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한다.

**보경스님의 경전강의 컨닝페이퍼**  
보경스님은 각 품다 품의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법화경 경전읽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된다. 스님은 손수 강의를 준비해 직접 강의를 하며 쌓은 자신만의 '법화경 강의 노하우'를 그대로 세상에 공개했다.

보경 강설 ● 884쪽 ● 25,000원  
신국판 양장 ● 2011년 4월 11일 발행

##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미국 University of the West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7년간 불교를 연구한 끝에 역편한 **일아스님**의 빠알리 경전 결정판!

일아 역편 / 신국판 / 양장제본 / 752쪽 / 28,000원

“수녀 출신 일아스님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펴내” (한국일보)  
“붓다의 가르침 『빠알리 경전』, 번역한 일아스님” (중앙일보)  
“초기불교 책 펴낸 ‘수녀 출신 일아스님’” (한겨레)  
“수녀 출신 비구니가 본 ‘붓다의 가르침’” (서울신문)  
“수녀 그만 두고 출가, 멋서 17년째 불교 연구” (경향신문)